

# 정보사회의



동양SHL(주) 대표이사 **염 휴 길**

인류문명은 농경사회에서 18세기 말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을 거치면서 지금의 산업사회를 형성하였으며,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은 21세기에 다가올 새로운 “정보사회”를 선명하게 예견해주고 있다.

1990년을 전후해 정보화의 흐름이 산업정보화에서 사회정보화로 흐르면서 비로소 정보사회라는 말이 우리곁에 다가왔고, 정보산업 역시 사회정보화를 중심으로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과거 우리의 생활 활동이 상하 평행이 뚜렷했던 3차원의 세계였다면, 앞으로의 정보사회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하와 평행이 동시에 존재하고 사라지는 4차원적인 구조의 사이버 사회로 변해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보라는 가상공간속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변화된 방식의 규칙과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가 갖는 첫번째 특징은 컴퓨터를 통해 정보교환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등장한 컴퓨터가 인류문명에 끼친 영향은 원자폭탄의 발명 이상이었고, 그 위력은 원자폭탄 수만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외의 장벽이 소멸되고 무한 경쟁이 일상화되는 세계화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바로 정보혁명의 시대로 들어서는 과정이며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의 단순기능을 지닌 개개의 PC들이 기술의 발달로 대형 Host가 필요없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PC들을 Network을 통해 연결하여 개개 PC들의 상호정보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다.

게다가 , 인류의 기술발달은 지역적인 정보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Internet 등의 범세계적인 Network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의 모든 사회활동을 컴퓨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보화, 생활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정보혁명은 정보사회로의 이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산업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산업내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보혁명이 진전되면 산업활동에 지식의 투입과 활용이 늘어나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전되며, 이는 정보산업의 고성장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업종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대부분의 산업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산업사회에서의 하드웨어 구조의 경직된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사고로의 변화이다. 즉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제품을 독창적으로 개

---

# 새로운 가치관

발하고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치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가 양이 늘어나는 사회가 아니라 정보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종래의 서열 조직식으로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는 복잡한 의사 결정단계가 축소되면서 수평적인 조직체제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다.

조직을 프로젝트 또는 타스크포스팀 단위로 재편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볼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보듯이 정보사회에서는 과거의 지시와 복종보다는 자율적인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사회인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정보화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관은, PC를 서로 연결시켜 정보를 공유하면서 기존의 자신만이 간직하던 정보의 폐쇄적 단계에서 외부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열린 사고이다.

즉, 열린사고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기업과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개방적인 가치관으로 폐쇄성이 강하던 산업사회에서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정보사회로 가는 사회구조와 환경은 날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는 그리 쉽지않은 않은 것 같다.

엘빈 토플러는 사회의 변천과정은 반드시 저항세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왜곡된 방향으로서의 진전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또 이 반대세력의 핵심은 변화를 제거하여 기득권을 확보하거나 연장시키려는 그룹이며, 그 이유는 기존 사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 말은 넓은 개념에서 구조적인 견제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역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기마련이며 그 잠재되어있는 자신만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사회로 가는 길에 올라 서있고 정보사회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로 가기 위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